

금융 Weekly Insight

은행주 실적 시즌 돌입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7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전주 금융주는 모두 KOSPI(-8.8%) 대비 아웃퍼폼. 은행과 보험이 각각 1.1% 및 1.7% 상승하였으며 증권은 4.2% 하락.
- 반도체 업종 중심 극심한 변동성 장세 하에서 은행과 보험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며, 증권업종 또한 실적 및 Valuation 매력도를 기반으로 양호한 주가 수익률 시현.
- 이번주부터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가운데, 견조한 실적 개선세 전망을 감안할 때 비중확대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한 구간으로 판단.

금융 Overview

- 은행 – 지난주 양호한 미국은행 실적, 이번주 국내은행 실적도 유사 전망: 은행주는 1.1% 상승하며 상당수 은행들은 2월부터 이어진 Trading range의 상단을 돌파 시도 중. 이는 견조한 실적대비 수개월간의 상승 랠리 소외에 따른 Valuation 매력도 제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지난주 발표된 미국 은행들의 2Q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이는 높은 시장 변동성 및 IPO 등에 따른 CIB부문의 호실적에 기인. 이번주부터 실적을 발표할 국내 은행들 또한 견조한 이자이익 성장 위에 계열 증권사의 실적 호조가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특히, 국내 은행들은 금리 인상 기조 하에서 NIM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 성장이 이익 레벨 상승을 동반한다는 점에 보다 초점 필요. 즉, ROE의 구조적 상승 및 주주환원율의 강화 기조 지속에 대한 확신이 이뤄질 경우, 이는 국내 은행들의 Tradingrange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긍정적 시각을 유지.
- 증권 – 급락 장세 속 실적 기반 기대감이 주가 지지: 증권 업종 주가는 w-w 4.2% 하락하였으나, KOSPI 대비로는 아웃퍼폼. 7/14 코스피 7,000선 붕괴·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극단적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 매매가 집중되며 단기 거래대금이 급증, 브로커리지 기대 수익 확대가 증권주 하방 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및 ETF LP 검사 후속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하나, 단기 이익 모멘텀 및 중장기 펀더멘탈 기대요인은 여전히 유효한 구간으로 평가.
- 보험 – 방어주 수급 이동과 금리 수혜 기대 동시 작용: 보험 업종은 w-w +1.7%의 상승세를 시현, KOSPI 대비 아웃퍼폼. 코스피 급락 장세에서 경기 방어 업종으로의 수급 이동이 집중된 가운데, 금리 상승 국면이 보험사 이원 개선에 우호적이라는 기대도 주가를 지지한 것으로 평가. 채권선도 헤지 포지션 관련 키스 비율 변동성, 차보험 손해율 악화 우려 등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 요인은 잠재하고 있으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긍정적 접근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7/12) 손보사도 실버타운 사업 진출 - 현대해상은 최근 손자회사인 현대HXP를 설립.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현대C&R이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 현대HXP는 실버타운으로 대표되는 시니어하우징 사업 전개 방침. 현대HXP가 직접 주거시설을 짓기보다는 운영과 자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 시설을 갖춘 기업이나 펀드를 대신해 운영을 맡고 수익을 내는 사업구조를 지향. - 당초 생보사가 진출하던 시니어 시장에 손보사가 진출한 것. 결국 보험 판매만으로는 레드오션이 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도. 참고로 국내 고령 인구 (65세 이상)는 111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9%.	보험사들의 시니어하우징으로 진출 증가: 전통적인 보험산업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기 시작함에 따라 KB, 신한 등은 관련 브랜드를 런칭하고 시니어하우징 사업에 진출. 당초 손보사는 생보사와 달리 상대적으로 건강 보험 등을 중심으로 성장 여력이 있었으나, 이 또한 레드오션화 됨에 따라 시니어하우징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 기존 보험 산업에 대한 고민을 반영: 최근 중소형 보험사들이 매물로 나오며 M&A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쉽게 딜이 종료되지 못하는 것은 중소형 보험사 인수를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손보사의 시니어하우징 진출은 이를 방증하는 결과.
	(7/12) 5대 금융 상반기 중 11.3조원 포용금융 실적 달성 -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와 함께 포용금융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포용금융 실적과 계획 등을 점검하였음. 이들 금융지주는 상반기 중 총 11.3조원의 포용금융을 공급. 이에는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미소금융 등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과 연체채권에 대한 은행의 차제 채무조정 및 채권 소각 대상 금액이 포함. -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71조원가량의 포용금융 공급계획을 내놓았는데, 6개월만에 목표치의 약 16%를 실행한 것. 참고로, 이 중 3.8조원은 연체채권 자체 채무조정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으로 이뤄졌음.	관건은 건전성 관리: 포용금융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향후 관건은 건전성 관리. 즉, 일각에서 우려하는 모럴 해저드가 야기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매크로 변수로 인해 이들 포용금융 대출의 부실이 예상 외로 커질 경우, 은행의 포용금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은행이 당초 공급해야 하는, 가령 생산적 금융 등에 대해서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건전성 관리가 최대 관건 중 하나로 판단. 비은행권 중심 부담도 고려 필요: 은행계 금융지주는 상대적 여력이 있는 반면, 2금융권은 머니무브에 따른 자금 이탈 및 지난 수년간의 부동산 금융 부실 등에 따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출 차주의 이탈은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즉, 이는 오히려 국내 금융 산업 내 대형 금융그룹 중심의 집중도 증대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
	(7/12) 신한증권 선취 판매 수수료 제로 펀드 출시 - 신한투자증권이 온라인 전용 펀드의 선취 판매수수를 없앤 상품을 출시. 이를 통해 고객들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높일 것이라는 것. - 또한, ELS와 채권 상품도 판매 비용을 줄여 고객 효용을 높이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매주 2~3개씩 선보일 예정.	머니무브 트렌드 하에서 대형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전략적 접근: 머니무브 속 개인 자금의 보다 높은 수익성을 쫓는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그룹은 계열 증권사로 이들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으로 판단. 특히, 신한금융은 뉴SOL이라는 통합 앱 개편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한 만큼, 이러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계열 증권사의 신규 고객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판단. 온라인 전용 상품에 대한 수수료 제로 정책: 수수료 제로 상품은 온라인 전용 상품에 한정함으로써 상품의 카니발리제이션을 억제함은 물론, 오프라인 대비 절감된 비용을 재차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개념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 상품 라인업 확대는 긍정적 - 다만, 향후 관건은 차별화된 개인 자산관리 역량의 확보 유무: 다만, 과거의 사례들을 놓고 볼 때, 상품의 제로 수수료 및 단순 라인업 확대는 고객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종착지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 한국의 개인 자산관리 시장은 엄밀한 의미의 자산관리보다는 상품 판매 단계로 판단되는 가운데, 향후 국내 자산관리 시장의 레벨업이 이뤄지는 시점에서의 관건은 결국 차별화된 개인의 자산관리 역량 유무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7/13) 일본 MUFG 40년 만에 일본 증시 시총 1위 달성 - 일본의 MUFG가 도쿄 증시 시총 1위를 기록. 동사 시총은 42조엔으로 도요타 40.9조엔, 키옥시아 36.7조엔을 상회. 참고로, 금융사가 일본 시총 1위를 달성한 것은 1986년 스미토모 은행 이후 처음. - 금융사들의 시총 약진 이유는 금리 인상과 주주환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2.9%를 기록, 30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으며, 여전히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즉, 16년에 시행되었던 마이너스 금리가 24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기간 은행들의 주주환원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판단. 참고로,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 MUFG의 시총은 5조엔 아래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결국 ROE와 주주환원 강화 노력에 금리 정상화가 거들다: 과거 일본은행은 저평가의 대명사였음. 제로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 기조 하에서 은행들의 수익성은 훼손되었고, 은행의 주주환원은 낮았음. 그러나,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ROE개선 및 주주환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난 10여년간 기울여 왔던 가운데, 일본 금리가 상승하는 데 따른 효과가 ROE의 가파른 회복으로 귀결되며 추가 상승을 견인. 특히, 금리가 0%에서 1%로 상승하는 것에 따른 효과는 3%에서 4%로 상승하는 것과는 파급력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 필요. 국내 은행에 대한 시사점: 일본 은행들의 PBR Re-rating은 국내 은행들의 Re-rating을 위한 조건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시사. 즉, 은행들의 ROE 개선 및 주주환원율의 지속적인 향상이 성과를 거둘 경우, 국내 은행들의 PBR 또한 1배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7/13) 은행 점포 축소 재개 - 20일부터 은행 대리업 시행 - 20일부터 은행 대리업이 시행. 전국 우체국에서 시중은행의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대신 취급하는 방식으로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금융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 또한, 향후 예금 상품으로 취급 상품 또한 확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저축은행까지 은행 대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의 점포 축소가 재개됨에 따라 은행 대리업이 오히려 점포 축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 - 참고로,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은행 영업점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3.3%, 65세 이상 고령층도 49.4%로 절반에 육박.	디지털 금융의 보편화 - 이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의 후퇴: 사실 이러한 현상은 금융만의 특징은 아니라 판단. 유통업에서 이러한 변화가 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쇼핑의 증가는 물론, 새벽배송 등을 통한 편리함의 제고는 결국 오프라인 유통업의 채널 축소로 귀결. 금융업의 오프라인 점포 축소 또한 이러한 변화와 유사한 관점에서 접근 필요. 즉, 은행들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오프라인 점포보다는 모바일 점점 강화는 물론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의 기능 강화에 할애하는 것으로 해석 필요. 실제로 은행들은 그간 모바일 통합 플랫폼 출시 및 주담대의 모바일 실행까지도 구현한 것이 대표적 사례. 단기적으로 영업 레버리지 확대 기대 vs 중장기 오프라인 채널의 고도화에 대한 고민 필요: 디지털화 속에서 단기적으로 은행은 영업 레버리지 확대를 기대 가능. 매출 증가에 소요되는 단위 원가 증가 폭이 디지털화를 통해 낮기 때문. 그러나, 머니무브 및 개인 자산관리에 대한 니즈가 보다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금융사들의 오프라인 채널 고도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 실제로 JP모건의 경우, 다른 은행들과 달리 오히려 오프라인 점포를 늘리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리테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 점은 고민 필요. 즉, 과거와 같이 단순한 업무를 지원하는 오프라인 점포에서 개인 고객의 자산관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온라인에서 누릴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업그레이드와 이를 고객이 얼마나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에 기여하는지가 관건.
	(7/15)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15bp m-m 상승 -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3.05%로 15bp m-m 상승. 잔액 기준 코픽스도 2.94%로 5bp 상승. - 이미 고정형 주담대 금리의 상단이 7%를 넘어서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금리부 상품 수요가 높아졌지만, 5대 은행의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4.02~6.37%로 상단이 6%를 초과한 상황. 여기에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며 변동형 주담대 금리 또한 상승 불가피. - 더 나아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NH는 지난 달 주담대 변동형 및 고정형을 각각 0.2%p씩 인상.	코픽스 금리 상승 - 2분기 예금 금리 상승을 시사: 코픽스 금리가 빠르게 오른 것은 결국 2Q 중 은행의 예금금리 상승 폭이 컸음을 시사. 머니무브 속에서 은행들의 수신 금리가 영향을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 이는 2Q NIM이 시중금리 상승에 비해 개선 폭이 더뎠을 가능성을 높음을 의미. 하지만, 은행 NIM은 3Q 재차 상승 전망: 은행 예금 금리 상승은 결국 코픽스 금리 상승 및 이에 연동된 은행 대출 금리 상승을 시사. 가령, 6월 예금 금리 상승은 7월 중순부터 6개월간에 걸쳐 변동 주기가 도래하는 변동형 주담대의 금리가 시차를 두고 상승을 야기 가능하며, 이는 향후 NIM의 재차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하반기에도 은행의 견조한 이자이익 성장 전망: 여전히 생산적 금융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NIM이 재차 회복세를 보일 경우 은행의 이자이익 개선 속도는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이는 올해 은행들의 이익 및 ROE 레벨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7/15) 기업은행 첫 분기배당 공시 - 기업은행은 첫 분기배당에 나서는 것으로 공시. 오는 31일이 배당기준일이며, 1주당 배당금액은 210원으로 시가배당률 1.0% 수준. 배당금 총액은 1,675억원이며 배당지급일은 8월 28일임.	분기 배당은 예상에 부합 수준: 분기 배당 DPS 210원은 당사 예상 204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올해 연간 배당 예상 금액 1020원의 20% 수준. 참고로 배당성향은 연간으로 25년 35%대비 1%p 상승한 36%를 전망. 즉, 금번 분기배당은 연말 일시 배당 중 일부를 선제적으로 지급함을 의미. 다만, 분기 배당보다 중요한 것은 배당성향의 상황 및 이에 대한 가시성 제고: 다만, 분기 배당이 연간 배당 성향의 가파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음. 당사는 동사의 배당성향이 소폭 상승하는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CET-1 비율이 12%를 하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심 유동성 공급 역할도 명확히 맡고 있기 때문. 결국 향후 필요한 것은 배당성향의 상황 속도 제고 및 이에 대한 가시성 제고가 될 것.
	(7/16) 한국은행 25bp 기준금리 인상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25bp 인상하였음. 이는 3년 6개월 만의 통화 긴축 결정. 더 나아가, 금통위는 이날 금리 인상 기조 지속을 언급. - 금통위의 금번 결정은 물가는 불안해진 반면, 경기 반등은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	경기 회복 기반 금리 상승은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 22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은행에 부담. 이는 당시 러-우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금리 인상 속도 또한 가팔랐고, 경기 회복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금리의 가파른 상승이 기존의 제로금리 상에서 늘어난 대출의 부실화를 야기했기 때문. 그러나, 금번에는 반도체 중심 경기 회복에 기반한 금리 상승이라는 점에서 은행은 NIM의 회복, 견조한 생산적 금융 중심 대출 수요 확대, 자산건전성 하향 안정화를 기대. 다만, 금리 상승은 이미 일부 선반영 - 즉 방향성에 초점: 다만, 금번 기준금리 인상이 즉각적인 NIM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음. 이는 시중금리가 이미 이를 선반영하여 상승하였고, 이에 은행들은 상반기 중 NIM 개선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 즉, 금리 상승이 이어진다는 방향성에 보다 초점 필요. 한편, 물가 상승은 불안 요소: 한국은행이 주시하는 물가 상승은 은행의 대출 수요 및 건전성 관점에서 불안 요소로 판단. 다만, 은행들은 이미 수년간 자산 클린업 및 PF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 자산을 크게 줄여온 만큼, 금리 인상이 은행의 충당금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은 당분간 낮은 것으로 판단.
증권	(7/16) 증권사 '영끌' 자본확충 경쟁...유증부터 신종자본증권·CP까지 총동원 -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유상증자·신종자본증권·기업어음(CP)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자본확충 경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상반기 중 KB증권(1.7조원)·한국투자증권(1.5조원)·우리투자증권(1조원)·NH투자증권(4,000억원) 등이 잇달아 유증을 단행한 데 이어, 7월에는 IM증권(1,500억원)·대신증권(700억원)이 신종자본증권을 추가 발행. - 자기자본 규모가 신용공여·발행어음·IB 수주 한도에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 자본 적재가 핵심 경쟁 우위 요인으로 부각. - 하반기 대형 IPO 회복 및 부동산 금융 정상화 국면에서 자본 여력이 풍부한 대형사의 선별적 수혜가 전망.	자본확충 속도가 IB 경쟁력 격차를 결정: 증권사별 자본 적재 속도 차이는 하반기 대형 딜 수주 역량의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은 자본 인정 요건 충족에 유리하나 연 5~6% 수준의 고비용 조달로 이자 부담이 상승하며, 유증은 기존 주주 희석 우려와 맞닿아 있는 만큼 발행 구조에 따른 추가 반응 점검이 필요. 대형사 대비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 제약이 IB·WM 신사업 진출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으로 판단.
	(7/15)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높인다...종가 리밸런싱도 분산 - 금융투자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해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자 묶음 판매를 도입하는 한편, 종가 집중 리밸런싱 분산 등 자율 규제 방안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파악.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23조원 이상의 자금이 집중되며 종가 전후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 -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일 리밸런싱에 필요한 주식 거래 규모는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기본예탁금 상향 및 묶음 판매 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가총액이 현재 14조원대에서 4~5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ETF 자율 규제 강화, 단기 거래대금 감소 압력 vs. 시장 신뢰 제고: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은 개인 투자자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단기적으로 브로커리지 거래대금 감소 압력 요인으로 판단. 종가 리밸런싱 분산 조치는 장 마감 전 집중 매매에 따른 지수 왜곡 완화 효과가 기대. ETF LP 관리 기준 정비로 시장 건전성 제고 방향은 긍정적이나, 레버리지 ETF 거래 축소에 따른 수수료 수익 영향에 대한 점검은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보험	(7/15) '킵스 효자' 채권선도...금리 오르면 보험사에 조단위 손실 - 국내 보험사들이 K-ICS 지급여력비율(킵스) 관리 수단으로 채권선도 매수 포지션을 활용해왔으나,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서 해당 포지션이 조 단위 평가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가시화된 것으로 파악. - 채권선도는 금리 하락기에 킵스 비율을 지지하는 효과적 헤지 수단이나, 금리가 상승 전환될 경우 역헤지로 전환되는 비대칭 위험 프로파일이 특징. - 2026년 1분기 손보업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한 배경 중 하나로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 영향이 지목. - 보험사 킵스 비율과 채권선도 익스포저 규모 간 상관관계에 대한 시장 재인식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평가.	채권선도 역헤지 리스크 재부각, 금리 민감도 높은 보험사 킵스 변동성 점검 필요: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채권선도 기반 킵스 관리 전략을 채택한 보험사들의 자본 비율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킵스 비율이 기준선(100~150%) 부근에 위치한 중소형사의 경우 채권선도 손실이 직접적인 비율 훼손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헤지 전략 재조정 혹은 듀레이션 갭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여부가 향후 보험사 자본 관리 전략 평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7/16) '빚투'에 2금융권 대출 급증...보험사 '웃고' 카드사 '울고' -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주식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빚투' 수요가 2금융권으로 집중되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이 급증 추세인 것으로 파악. - 주요 생·손보사 10곳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6년 5월 말 기준 55조 8,890억원으로 한 달 사이 5,812억원 증가, 최근 5년 사이 최대 월간 증가 폭을 기록. - 약관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구조로 신용 리스크가 사실상 없어, 카드로 연체율 상승 우려와 대비되는 보험사의 상대적 우려가 부각. - 금융당국이 2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약관대출 급증, 보험사 이자수익 상승 기반 기대: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담보 구조로 부실화 위험이 없는 만큼, 대출 잔액 증가는 보험사 운용수익률 제고에 직접 기여하는 저위험 모멘텀으로 판단. 은행권 대출 규제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맞물린 빚투 수요의 2금융권 집중 현상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로, 약관대출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에 주목. 다만 금융당국의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과 증시 급락 시 약관대출 수요 위축 가능성 동시 점검 필요.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7-20 (월)		미국 6월 경기선행지수 독일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일본 증시 휴장 중국 7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26-07-21 (화)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독일 7월 ZEW 경기기대지수 영국 6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영국 5월 실업률
2026-07-22 (수)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영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영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026-07-23 (목)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미국 6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로존 ECB 기준금리 결정
2026-07-24 (금)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미국 7월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미국 7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7월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독일 7월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독일 8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7월 CIPS/S&P 글로벌 서비스업·제조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7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6월 소매판매 일본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7월 서비스업·제조업 PMI 예비치

자료: 삼성증권

Company event	국내	해외
2026-07-23 (목)	KB금융, 신한지주, JB금융지주 실적 발표	
2026-07-24 (금)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실적 발표	

자료: 각 사, 삼성증권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410.9	6,820.6						(8.8%)	(21.8%)	114.1%	61.8%
	KRX은행	218.2	1,700.9						1.1%	0.7%	35.9%	30.5%
	KRX증권	73.3	2,144.3						(4.2%)	(15.3%)	45.3%	40.2%
	KRX보험	126.2	4,101.9						1.7%	(7.5%)	57.5%	53.2%
	결제 지수**	1,183	n/a						(2.1%)	(12.3%)	(18.7%)	(9.8%)
은행	KB금융	64.2	181,100	55.4	1.1	12.1	9.3	19.9	(1.8%)	5.3%	59.4%	45.2%
	신한지주	51.2	107,900	52.9	0.9	10.9	8.7	22.0	(1.2%)	1.1%	55.5%	40.3%
	하나금융지주	37.5	136,800	50.3	0.9	11.2	8.0	18.5	6.5%	3.6%	49.2%	45.4%
	기업은행	17.2	21,600	36.0	0.6	8.7	6.5	3.7	1.6%	(6.5%)	4.3%	3.1%
	BNK금융지주	5.7	18,330	44.7	0.5	8.4	6.4	11.2	2.7%	(0.8%)	17.4%	15.5%
	JB금융지주	5.2	27,400	43.2	0.5	9.5	5.5	22.4	5.2%	(3.0%)	14.6%	6.8%
	iM금융지주	2.9	18,410	50.0	0.9	13.1	7.0	4.8	3.1%	1.7%	21.9%	18.4%
	카카오뱅크	11.0	23,000	50.0	1.6	8.9	17.8	28.6	0.4%	(4.8%)	(22.7%)	6.5%
증권	미래에셋증권	22.4	40,050	40.5	2.0	18.2	15.2	72.9	(5.1%)	(21.9%)	92.0%	72.3%
	NH투자증권	11.4	31,000	45.7	1.3	12.6	11.1	19.4	(1.9%)	(5.6%)	39.3%	46.9%
	한국금융지주	12.8	229,000	22.4	1.1	20.0	6.4	23.6	(4.2%)	(9.3%)	48.5%	41.6%
	키움증권	8.4	322,000	22.6	1.6	22.6	7.8	44.7	(4.2%)	(17.4%)	38.8%	11.2%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8	118,300	50.0	1.7	22.8	8.2	14.9	2.9%	3.4%	2.2%	4.6%
	삼성화재	31.3	701,000	45.1	1.0	10.1	10.9	12.0	8.2%	4.5%	49.1%	41.0%
	삼성생명	66.2	331,000	46.3	0.6	3.7	15.9	17.8	(2.8%)	(23.2%)	142.3%	110.0%
	DB손해보험	10.7	163,000	32.3	1.1	16.6	6.6	9.0	4.6%	6.3%	18.2%	24.3%
	한화생명	3.9	4,540	16.4	0.3	5.6	6.3	37.8	(2.4%)	(18.2%)	14.2%	39.5%
	현대해상	3.3	38,300	11.7	0.5	17.5	3.3	18.3	0.4%	(7.2%)	36.3%	24.4%
결제	카카오페이	5.5	40,900	n/a	n/a	6.9	43.6	180.2	5.3%	(12.0%)	(39.2%)	(16.7%)
	NHN KCP	0.5	12,420	n/a	n/a	17.9	8.5	28.8	(3.8%)	(19.2%)	(22.0%)	(16.7%)
	KG이니시스	0.3	9,410	n/a	n/a	7.1	4.5	9.9	(1.1%)	(6.9%)	(22.2%)	(7.9%)
	KG파이낸셜	0.2	4,030	n/a	n/a	10.3	5.4	12.1	(1.0%)	(5.2%)	(28.9%)	(14.3%)
	나이스정보통신	0.3	29,900	n/a	n/a	9.1	4.5	39.4	(0.7%)	2.7%	12.0%	17.9%

참고: 7/16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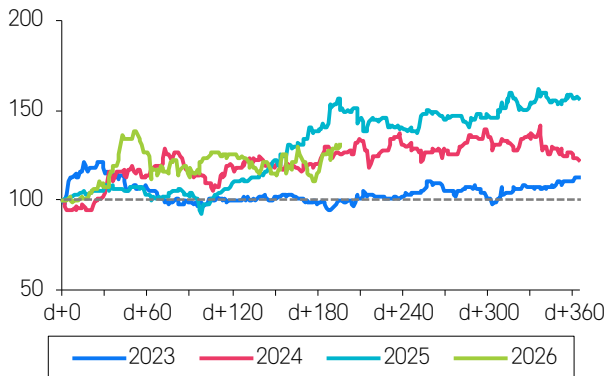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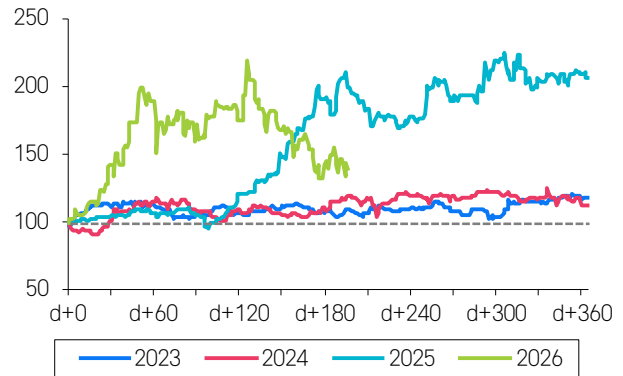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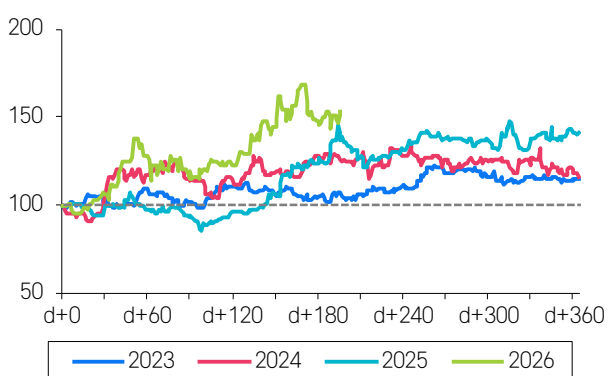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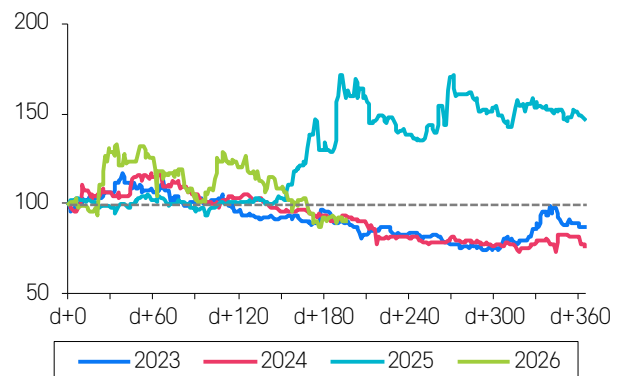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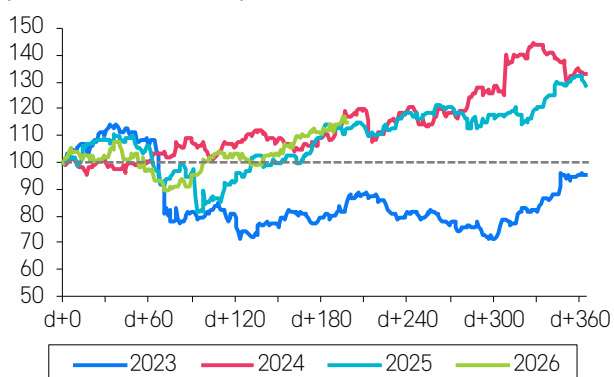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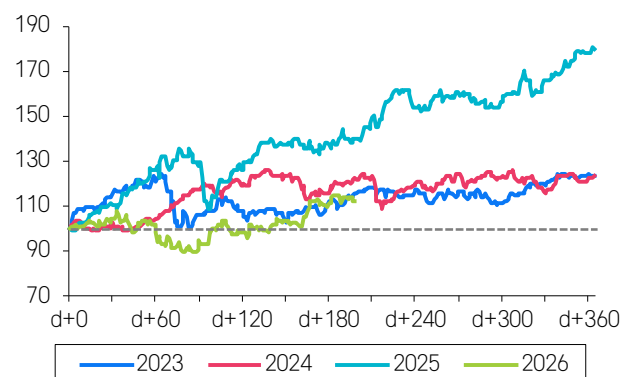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지수화: 202x.01.01 = 10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914.0	72.6	2.5	18.3	14.0	21.4	1.4	4.9	17.1	5.9
		Bank of America	434.8	98.1	1.5	12.1	13.2	21.8	2.7	9.0	29.5	11.4
		Citigroup	220.6	113.8	1.1	9.9	11.7	58.3	(8.1)	(9.6)	38.4	10.9
		Wells Fargo	267.8	86.9	1.6	13.1	12.2	14.8	0.4	6.5	8.5	(6.1)
		PNC Financial	101.5	72.5	1.7	13.0	13.4	13.6	0.4	9.0	28.7	21.1
	유럽	Banco Santander	198.3	63.4	1.6	13.4	10.9	12.7	(2.7)	0.1	62.9	17.3
		Unicredit	138.9	81.3	1.8	17.3	10.6	7.7	(2.9)	1.4	38.8	13.6
		BBVA	140.7	84.0	2.1	19.2	10.7	17.4	(1.8)	3.4	73.0	10.1
		ING Group	93.1	82.9	1.6	13.6	11.7	14.4	(0.2)	1.5	45.5	19.0
		Lloyds	87.2	80.4	1.5	13.7	10.2	44.1	(0.6)	6.1	43.3	13.5
		Barclays	93.8	66.0	1.0	10.8	9.1	19.7	0.8	4.1	47.8	8.6
	일본	Mitsubishi UFJ FG	253.7	48.8	1.7	12.1	14.1	15.2	0.3	5.9	76.5	39.3
		Sumitomo Mitsui FG	158.4	46.5	1.5	11.2	14.1	15.6	(1.4)	3.7	86.8	33.3
		Mizuho FG	119.3	53.1	1.6	12.5	13.8	14.1	(4.5)	0.6	92.2	39.1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77.6	30.4*	0.6	9.1	6.7	3.0	3.8	0.9	11.6	9.9
		China Construction Bank	286.0	29.8*	0.6	9.6	6.3	1.7	2.0	(3.8)	(2.1)	7.8
		Agricultural Bank of China	323.2	30.6*	0.7	9.8	7.0	4.1	3.5	0.2	6.2	(1.7)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58.6	N/A	1.4	5.8	20.7	(23.6)	(0.5)	0.3	3.5	(2.5)
		AIG	42.7	86.0	1.0	10.2	11.2	흑전	1.7	8.8	(0.9)	(5.9)
		Travelers Insurance	77.0	82.8	2.2	19.8	12.8	4.7	8.9	19.9	38.7	27.2
	유럽	Allianz	183.8	80.5	2.5	18.4	13.7	11.4	0.3	5.6	22.4	8.3
		AXA	107.0	59.6*	1.9	17.3	10.8	(8.1)	1.2	5.4	6.9	9.4
		Generali	74.1	57.6*	1.9	14.2	13.6	12.8	0.4	(0.7)	33.1	18.2
	일본	Tokio Marine	89.6	49.2*	2.2	15.4	15.1	77.9	(1.1)	4.6	27.9	29.4
		Daiichi Life Insurance	40.1	54.6	1.5	12.7	12.5	20.2	(3.3)	(0.9)	59.8	38.0
	중국	Ping An Insurance	131.6	36*	0.9	13.9	6.6	7.2	2.9	1.4	3.3	(16.2)
		China Life Insurance	145.1	18.3*	1.1	20.9	5.5	(11.0)	(6.8)	(5.5)	34.7	(3.3)
		PICC P&C Insurance	40.2	38.5*	1.0	13.4	7.7	0.9	0.0	(5.8)	(8.3)	(13.3)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26.6	100.5	2.8	18.6	15.7	32.3	1.0	(2.9)	50.4	21.2
		Morgan Stanley	338.8	67.1	3.1	18.8	16.9	25.2	(3.1)	(3.4)	53.0	21.4
		Charles Schwab	181.8	89.1	3.7	23.9	16.6	31.5	(1.5)	10.8	6.0	1.7
		Robinhood	90.1	41.5	8.3	17.6	51.5	(5.3)	(10.7)	(7.6)	(8.9)	(11.6)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42.5	78.4	7.0	35.3	20.1	15.0	1.4	5.1	15.4	(3.9)
결제	미국	VISA	692.2	21.4*	20.0	67.1	28.0	25.5	2.7	9.6	2.7	2.2
		MasterCard	480.4	18.1*	55.6	223.3	28.0	17.6	3.2	11.0	(1.6)	(4.8)
		PayPal	49.9	5.8*	2.4	23.4	11.2	(6.7)	22.1	33.1	(23.7)	(3.1)
	유럽	Adyen	30.2	0*	4.1	21.2	21.2	17.1	(1.6)	(4.9)	(46.5)	(39.4)
핀테크	미국	Block	47.6	0*	2.0	9.7	36.9	3.2	3.4	6.9	9.8	22.8
		Upstart	2.8	0*	3.4	19.1	33.0	98.5	(9.9)	(9.0)	(62.3)	(32.5)
		Affirm	25.5	0*	6.1	11.8	60.9	732.1	(8.8)	2.9	10.4	2.2
	중국	LuFax	1.2	N/A	0.0	(0.1)	N/A	흑전	3.7	11.2	(49.8)	(45.7)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7/17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